

즉시 보도용

2024년 11월 11일

Contact: lamayornews@lacity.org

배스 시장, 베테랑스데이 맞아 재향군인 주택 건설 진전 강조

로스앤젤레스 – 캐런 배스 LA 시장은 오늘 재향군인(베테랑) 노숙자 문제에 있어 진전을 강조하는 동시에 더 많은 비주택 재향군인을 영구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노력에는 비주택 재향군인을 더 많은 서비스에 연결하고, 지역 임대인이 재향군인에게 임대하도록 장려하고, 더 많은 재향군인을 영구 주택에 연결하기 위한 부서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이 포함된다. 최근 몇 주 동안 LA 시는 빈 유닛을 보유한 집주인들과 참여 이벤트를 개최, 정보와 리소스를 공유하며 HUD-VASH 바우처를 보유한 이전 비주택 재향군인을 지원했다.

배스 시장은 “우리나라를 위해 봉사한 앤젤리노는 길거리에서 잠들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노숙자 재향군인들이 더 이상 장애 수당과 주택 바우처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도록 정책을 변경해 지원하는 데 진전을 이뤘다. 이제 우리는 그들을 로스앤젤레스의 가용 주택과 연결하고 우리 방식에 방해가 되는 적폐를 제거함으로써 이러한 진전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취임 이후 다음과 같은 배스 시장의 긴급 조치에 따른 것이다.

- HUD-VASH로 알려진 재향군인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에 참여, 관심있는 임대인이 재향군인에게 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HACLA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50명 이상의 임대인이 자원을 했고, 정보 이벤트에 참석해 이들을 위한 65건의 아파트 예약 투어가 이뤄졌다.
- 장애 수당이 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 [연방 정책을 변경](#), 더 많은 재향 군인들이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옵션을 늘렸다. 이러한 정책 변경은 배스 시장과 미 시장협회 노숙자 태스크포스 회의가 연방 정부를 옹호한 직접적인 결과다.
- [미 주택도시개발부로부터 연제를 받아](#) 재향군인 주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사람들을 더 빨리 주택으로 이주시킬 수 있는 유연성을 높였다.
- 백악관 및 미 노숙자 기관 간 협의회와 역사적인 합의를 체결, [LA를 전국의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초의 이니셔티브인 올 인사이드\(ALL INside\)](#)에 가입하도록 했다.

의원 역임 시절, 배스 시장은 동료 의원들 및 데니스 맥도너 재향군인부 장관과 협력해 웨스트 LA지역 VA 메디컬 센터 캠퍼스에 있는 재향군인들이 영구 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오늘 미 주택도시개발부는 재향군인 노숙자 감소와 더 많은 재향군인 주택을 위한 지속적인 진전을 이루겠다는 국가적 약속을 발표했다.](#) 2024년 로스앤젤레스 노숙자서비스국의 집계에 따르면 재향군인 노숙자 수는 22.9% 감소했다.

[배스 시장은 취임 첫날부터](#) 노숙자 위기에 대한 전례 없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노숙자들을 실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통해 노숙자 문제 해결 방식에 변화를 주도해왔다. 또한, 앤젤리노가 노숙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모든 정부 차원에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오고 있다.

###